

음악대학 교과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of Music College

김현수* · 이동수**

Hyun-su Kim · Dong-su Lee

초록 본 연구는 음악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음악대학 교과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음악직무구분을 바탕으로 현 교과과정에 적용가능 한 교과목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4개 항목별(중요도, 시급성, 실행용이성, 파급도) 점수 평가를 통하여 교과목 도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커리큘럼, 진로교육, 음악대학 전공생, 교수자에 대해 심층진단 하였으며, 교과목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 ‘예술직업에 대한 이해’, ‘음악 마케팅과 관객개발’, ‘미디어와 예술’, ‘문화예술콘텐츠 비즈니스’, ‘오디션 실습’, ‘음반 기획 및 실습’, ‘셀프 프로모션’ 등이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교과목임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음악대학, 교과과정, 음악전공자, 교과목 우선순위, 음악대학 교과과정 개편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curriculum of music college as a basic research for educational innovation of music college. Then, based on music job classification, the research suggests a subject that can be applied to current curriculum. Furthermore, the research derives the prioritization of the curriculum through experts' rating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four assessment items (importance, urgency, ease of execution, prevalence).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that is able to deeply examine the curriculum, career education, and the students and professors of the music college. In addition, priority evaluation result shows that 'Performance-Events Planning', 'Understanding the Arts Profession', 'Media and Arts', 'Arts & Cultural Contents Business', 'Audition Practice', 'Record Planning and Practice', 'Self Promotion' has been derived.

Key words: college of music, curriculum, music majors, course priority, revision curriculum of music college

* First author, E-mail: hskim@smu.ac.kr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use6@naver.com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30775/KMES.48.4.121>

I. 서론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주창된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모든 산업 환경을 빠르게 바꾸어 가고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증강현실(AR)·가상현실(VR)·자율주행·드론·3D프린터·공유경제와 관련된 산업이 유망하게 떠올랐으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7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WEF의 '미래고용보고서'의 전망대로 직업구조가 수요와 공급 양측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16년 3월 한국 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어 인공지능, 로봇 등 기계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낮은 유망직업으로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작가 및 관련전문가, 지휘자, 작곡가 등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즉 원본을 창조 해내는 예술분야 직업을 발표한 바 있다(News1, 2016). 이처럼 과거에는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분별하며 판단하는 지적 능력인 '인지능력'이 강조되었다면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지적능력 외에 잠재되어 있는 '인성', '감성', '창의성' 등 '비인지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 새롭게 각광받는 시대가 열렸다. 실제로 교육부의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연주·작곡가가 희망직업 10위권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희망직업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는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라 답하였다. 즉, 앞으로는 학벌을 위한 대학진학보다 어떤 일을 즐기고 잘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의 직업 선택과 발전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음악대학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서울의 상위 몇 개 대학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음악 대학은 2014년도 이후 정부중심의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본격적으로 감행되면서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및 폐과가 진행 되어 대학 내에서 입지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즉 취업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실용학과는 강화되고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는 다른 과로 통합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의 여파로 대학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지방의 음악대학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¹⁾. 이와 같이 대학의 목적과 기능이 '실용성'에 맞춰져 변화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학과 교과과정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며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려는 몇몇 음악대학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에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대다수는 위기의식은 있으나 나아가야 할 방향성 없이 변화를 꺼리고 소극적으로 대응하

1) 교육부발표에 따르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보면 구조조정대상으로 수도권 수도권 대학은 26곳으로 전체의 30%에 그치고 나머지 60곳(70%)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지방대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18)

고 있다. 사실 음악대학 교과과정 변화의 필요성은 음악교육이 호황이던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변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음악대학의 교육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이다.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혹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여전히 30년 전의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악대학 교과과정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및 진로선택과 관련한 연구(Jung and Choi, 2013; Chu, 2013; Jung, 2014),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연구(Lee, 1997; Lim, 2015; Lee, 2011)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국내 음악대학들이 변화에 뒤처진 채 교수 중심의 전통적 학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며 음악전공 대학생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어떠한 교과목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지 등 현실적으로 적용할만한 답을 얻기는 어렵다. 음악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문헌연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음악대학 교과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음악 직무구분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 한 교과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도출된 교과목 별 점수 평가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4분면에 측정값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음악대학 커리큘럼 개선을 위한 연구결과가 음악대학의 교육변화에 기여하고 변화된 교육을 받은 음악인재들이 새롭고 창의적으로 문화예술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음악교육의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1925년 현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최초로 대학에서의 음악교육이 실시되었고 이 후, 1945년 12월에 경성 음악학교가 설립되었다. 경영음악학교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에 편입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4년제 음악대학이 되었다(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이 후 1955년에 연세대(신과대학 내 종교음악과 신설), 경희대(체육대학 내 체육음악과 신설), 숙명여대(음악대학 내 음악학과 설치)를 비롯하여 1960년대에는 한양대(문리과대학 내 음악과 신설), 계명대(종교음악과

신설), 영남대(문리과대학 내 예술학부 신설) 등에서 본격적인 대학음악교육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성신여대(1970), 중앙대(1973), 부산대(1974), 추계예대(1980), 경북대(1982), 전북대(1987), 국민대(1997), 울산대(1998) 등의 대학에서 신설되면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5년 음악학부(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의 숫자는 전국의 88개에 달하였다가 2018년 기준으로 예술대학 및 음악대학 내 음악학부(과)를 운영 중인 대학은 30개교이다(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8). 4년제 대학교에서의 음악학부(과)는 음악대학, 예술대학, 예체능 대학의 단과대 내 음악학부, 음악학과, 음악과, 기악과 등의 다양한 학부(과)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악학부(과)의 하부에는 더욱 세부적인 전공(국악, 성악, 관현악, 피아노, 작곡 등)의 최소교육단위를 두고 있다. 이들 30개교의 학교명/설립구분/지역/단과대여부/학부·과(전공)는 아래와 같다(가나다 순).

- 가천대/사립/경기/예술대학/음악학부
- 경북대/국립/대구/예술대학/음악학과
- 경희대/사립/서울/음악대학/음악학과
- 계명대/사립/대구/음악대학/전공
- 국민대/사립/서울/예술대학/음악학부
- 군산대/국립/전북/예술대학/음악과
- 단국대/사립/경기/음악대학/음악학과(전공)
- 대구카톨릭대/사립/경북/음악대학/음악학과(전공)
- 동덕여대/사립/서울/예술대학/음악학과(전공)
- 목원대/사립/대전/음악대학/음악학부(전공)
- 부산대/국립/부산/예술대학/음악학과
- 서경대/사립/서울/예술대학/음악학부
- 서울대/국립/서울/음악대학/음악학과(전공)
- 성결대/사립/경기/예술대학/음악학부
- 성신여대/사립/서울/음악대학/음악학과(전공)
- 세종대/사립/서울/예체능대학/음악과
- 수원대/사립/경기/음악대학/음악학부
- 숙명여대/사립/서울/음악대학/음악학과(전공)
- 연세대/사립/서울/음악대학/음악학과(전공)
- 영남대/사립/경북/음악대학/음악과
- 울산대/사립/경북/음악대학/음악과
- 이화여대/사립/서울/음악대학/음악학과(전공)
- 전남대/국립/광주/예술대학/음악학과

- 전북대/국립/전북/예술대학/음악과
- 중앙대/사립/경기/예술대학/음악학부
- 창원대/국립/경남/예술대학/음악과
- 추계예대/사립/서울/음악대학/음악학과(전공)
- 충남대/국립/대전/예술대학/음악과
- 한양대/사립/서울/음악대전/음악학과(전공)
- 협성대/사립/경기/예술대학/기악과

2. 대학구조조정과 음악학과의 변화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긴 하였지만 국내 고등교육은 자주적인 고등교육의 근간을 마련했다기보다 미군정에 의한 자유방임적 교육이념을 도입하였고, 형식상의 조건만 충족되면 미군정 당국이 대학설립을 인가해주던 경향의 지속과 폭발적인 경제발전과 맞물리면서 양적 팽창을 이루어왔다(오천석, 2016, p.23). 매우 특징적인 점은 시장영역의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과 통제가 상당히 강하다는 독특한 양상을 띠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및 고용구조는 늘어난 고등교육 이수자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80년대에 들어 고등실업자 증대의 문제로 이어져 21세기까지도 지속되고 있다(Kim, 1989, p.20). 이러한 취업난은 혼인을 하락과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대학의 ‘양 감축’과 ‘질적 개선’을 통한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목표로 대학구조개혁을 감행하게 되었다. <Table 1>에서 2018년도 기준 국내 4년제 음악대학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에 12개, 경기 6개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구, 대전, 부산, 전북, 경북, 울산, 광주, 경남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Korean Music College (As of 2018)

Region	Seoul	Gyeong-Gi	Dae-gu	Dae-jeon	Bu-san	Jeon-buk	Gyeong-buk	Ul-san	Gwan-ju	Gyeong-nam
N	12	6	2	2	1	2	2	1	1	1

<Table 2>에서 한국 교육개발원(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2017)의 교육통계서비스 내 대학교육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도 기준 293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지원자수는 68,881명, 입학자 수는 6,064명으로 여전히

입학자 수 대비 높은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타음악(음악콘텐츠학과, 공연음악예술학부, 뮤지컬·실용음악학과, 보컬전공 등)의 융합학과 및 실용음악관련 학과에 지원비율이 높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Number of Students in Korean Music College (As of 2017)

	Musico-logy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mental music	Vocal Music	Composi-tion	etc.	Total
Number of department	72	21	73	32	26	69	293
Number of applicants	12,368	2,585	14,704	10,246	2,437	26,541	68,881
the number of students admitted	1,760	422	1,582	583	355	1,362	6,064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대학구조개혁은 2014년도 1월 28일에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더욱 가시화 되었는데 학교 수 감축과 입학정원 수 감축을 병행 하여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의 핵심은 대학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것 즉, 취업률이 되었다. 정책의 결과를 반영하는 듯 <Table 3>에서 한국교육개발원(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2017)의 교육통계서비스 내 취업통계를 통해 음악대학의 졸업자수 대비 취업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도까지 매우 낮은 취업률에 그치는 반면 2014년도부터는 취업률이 수치상으로 상승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제도흐름 아래 초래된 변화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중심의 대학 과밀화 현상과 이로 인한 지역 예술계의 불평등한 인력수급, 취업률이 저조한 전국 예체능계 입학정원 감축, 인문 및 순수예술학과 통폐합, 순수예술에 반하여 실용위주(대중예술) 예술학과로 편중된 예술 독식현상 등이 있으며 예술 계열의 생태는 급변하였다(Park, 2015, pp. 25-26).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Table 3>의 통계를 다시 해석해 본다면 취업률이 높은 특정 음악장르 중심으로의 학과개편 및 통합 혹은 취업률이 저조하여 폐과된 음악대학을 제외한 통계수치 결과로서 취업률이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15년에 전국 88개에 달하던 음악학부(과)가 2018년에는 30개교로 집계된 앞 선 문헌검토 결과도 이를 반증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예술계의 비판적인 분위기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음악대학은 자체적인 변화와 생존을 위한 타 분야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Table 3> Employment Statistics of Korean Music College (2012~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Number of graduates(N)	5,967	5,887	6,018	6,245	6,077
Employment rate (%)	26.2	28.3	43.4	44.6	48.4

3. 음악대학 교과과정 선행연구

과거에는 국내 대학의 음악교육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술교육의 특성상 한 가지 전공의 지식과 기량에만 깊게 집중하는 훈련이 모범적인 교육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률, 산업수요 연계중심의 대학 지원사업, 수치적 성과확보의 실패 등의 이유로 통폐합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음악대학들은 앞으로의 대학교육의 방향에 맞추어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대학 교과과정의 문제는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최시원(Choi, 1983)은 음악대학 졸업생 중 소수만 연주자로 성공할 수 있음에도 대학의 교과과정이 이러한 연주자 양성에만 집중된 것을 우려하였다. 이 후 이연경(Lee, 1997)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음악시장 내 전문영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 음악인 양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미국음악대학의 체계, 교과과정, 전공영역 등을 소개한 뒤 국내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주전공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음악이론, 음악교육, 음악치료, 재즈, 음악산업, 음악극, 전자매체, 녹음기술 등을 포함하는 직업성과 실용성이 강조되는 다양한 전공영역을 개설된다는 점, 학과별로 동일한 커리큘럼이 운영되는 한국과 달리 현악기, 목관악기 등 전공악기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교과과정이 운영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영하(Lee, 2011)는 음악 전공생들의 음악시장 내 다양한 분야로의 인력 배출을 위한 음악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대학과 미국의 UCLA 음악대학(지역 사회 또는 음악관련 기업 인턴십, 전공악기별 협주반주수업, 음악 산업 등),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음악대학(현장업무와 민족음악학 등),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음악대학(음향연구, 오디오 및 스튜디오 기술, 행동과학, 음악치료, 발레교육학 등), 줄리어

드 음악원(알렉산더 테크닉²⁾, 경력개발 세미나, 21세기 공연예술:직업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커리큘럼 개선,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인턴십 프로그램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진호(Choi, 2014)는 취업률 제고 및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악전공생들과 취업률과 직업적 안정성 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지닌 경영학 전공생들 간의 커리큘럼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음악전공생들이 경영전공생에 비하여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한 요소에 가장 불만족하는 것을 밝혀 실질적인 교과과정의 전환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선옥(Park, 2014)은 예술계열의 산업수요를 예측한 교과과정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대학과정에서의 기술 숙련, 다양한 창의적 경험, 타 분야와의 협업 등이 졸업 후 개개인의 능력 표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은 필수적이며 분야별 전문가집단의 연구와 검증을 토대로 교과과정이 개발되고 개인의 직무능력개발로 이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정환호(Jung, 2014)는 음대생 관점에서의 음악 관련 직무를 규명하고자 가치사슬 분류법을 기반으로 음악산업, 공연산업, 음악교육, 콘텐츠 산업의 세부분야 구분과 창작, 매개, 지원의 세 가지 분류 방식으로 다양한 음악관련 직무를 설명하였다. 임지영(Lim, 2015)은 예술대학이 여전히 개개인의 예술적 기량증진과 예술이론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을 비판하고 그들이 지닌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과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20년 전부터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성 향상을 고민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내 음악대학, 이스트만 음악대학, 커티스 음악원, 맨하튼 음악학교의 기업가 정신교육 사례를 소개하였고 국내 창의인력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김한욱(Kim, 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음대생들의 활동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문가 및 학생대상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학과 내부적으로는 과거와 비슷한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 외에는 관심도가 낮음을 밝혔으며 학과 및 학생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환경조성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리더십 향상, 창작, 기획경영, 협력의 4가지 범주아래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이해’, ‘4차 산업혁명으로 본 음악 트렌드 분석’ 등 11개의 새로운 과목을 제안하였다.

해외의 경우 음악전공자의 진로교육은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주목되면서 연구자들에 의해 40여 년 전부터 논의되었는데(Hutchens & Zoe, 1985; Shepherd & Vulliamy,

2) 알렉산더 테크닉: F. M. 알렉산더(1869~1955)에 의해 만들어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고정된 생각과 행동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심신의 조화를 회복하는 기법으로 줄리어드 스쿨, 영국왕립음악학교 등 세계적인 예술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1994; Parkes & Jones, 2011; Beckman, 2005; Brown, 2005; DeNora, 2003; Dunbar-Hall, 2005; Essig, 2012; Hanley, 2003; Pollard & Wilson, 2014; White, 2013), 슈미트(Schmidt, 1977)는 음악 전공생들에게 진로교육은 또 하나의 교과과정으로서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루메리(Rumery, 1982)는 연주활동 이외에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관련 진로들이 존재함을 알리면서 대학 교수진과 음악 산업 내 전문가들이 진로선택을 지원을 할 의무를 밝혔다. 즉 음악전공생들이 졸업 후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음악 산업에 대한 이해로서의 진로교육이 강조되어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자연스럽게 미국 내 대학의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쳐 음악 연주 뿐 만 아니라 음악경영, 음향기술, 제작 및 디렉팅 등 음악에서 파생된 다양한 전공체계를 이루게 하였다. 이에 미국은 실제 음악 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직무가 음대 커리큘럼과 연계되는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부스(Booth, 2017)는 그의 저서 "*The Music teaching artist's bible*"에서 줄리어드 음악원의 <교육과 예술>이라는 교과목을 소개하였다. 청중과 관계 형성하는 법, 관객과 소통하는 연주회 기획, 레슨기량을 키우는 수업기획, 강의와 연주가 함께 동반되는 연주회 기획 뿐 아니라 음악교육 관련 저서 탐구, 기획회의를 이끄는 방법, 교육프로그램 홍보자료 제작방법 등의 다양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음악대학 교과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적용가능 한 교과목을 제안하며 도출된 교과목의 우선순위 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국내 음악대학교육 및 커리큘럼, 음악대학의 방향성 등에 대한 탐색을 위해 통계자료, 실태조사 자료 및 문헌연구와 서울소재 음악대학 교수이자 분야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국내 음악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본인이 소속된 음악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교육과정의 특징 또는 장단점, 교육과정과 진로와의 연계성, 음악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교육과정 확대),이 외 향후 음악시장에 진출할 음악전공생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능력, 태도, 지향점 등) 등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개요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Expert Overview

In-depth interview/ Closed-type Questionnaire	Gender	Age Range	Musig Major (Practical Music Related Majors Not Included)
Expert 1	Female	30-39	Korean Traditional Music
Expert 2	Male	40-49	Instrumental Music
Expert 3	Female	40-49	Vocal Music
Expert 4	Female	30-39	Vocal Music
Expert 5	Female	40-49	Composition
Expert 6	Male	40-49	Korean Traditional Music
Expert 7	Female	30-39	Instrumental Music
Expert 8	Male	40-49	Instrumental Music
Expert 9	Female	40-49	Composition
Expert 10	Male	30-39	Korean Traditional Music
Expert 11	Female	50-59	Vocal Music
Expert 12	Male	50-59	Instrumental Music
Total (N)		12	

또한, 버스커빌(Baskerville)³⁾의 음악 직무구분에 따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음악관련 직업을 세부 분류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창작분야의 실연자(가수·기악)들이 대부분 공연을 한다는 점에서 창작분야와 공연분야의 직업분류가 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연분야 직업은 창작분야 직업부문으로, 공연기획 및 제작 관련 직업은 기획·제작 분야 직업부문으로 재분류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대학 교과과정에서 직무 별 필요한 교과목 도출 및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도출된 교과목에 대하여 중요도, 시급성, 실행용이성, 파급도별 7점 척도로 점수평가를 실행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도입해야할 교과목 선별을 위해 도출된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4분면에 측정값을 제시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데이비드 버스커빌(1918-1986)은 미국 Denver의 University of Colorado의 명예교수이자 음악가, 음악학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컨설턴트, 음악교육자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였으며 1979년도에 최초 발행되어 2019년도까지 열 두번째 에디션(Twelfth Edition)으로 발행된 베스트셀러 ‘Music Business Handbook and Career Guide’의 저자이다.

<Table 5> Job based music classification

Music Job Classified by D. Baskerville		Music-Related Jobs Classified by Statistical Office
1	Creative Career	Music Arranger, Music Composer, Lyricist, Performer (singer, instrumental music), Chorus & Symphony orchestra member, Conductor, Accompanist
2	Directing / Producing Career	Music producers, Record and sound producers, Recording, sound, and recording engineers, performance planners, Performance producer, Performance promoter
3	Performing Careers	-
4	Teaching Careers	Music instructor, Public and private school music teachers, University Professors, Educator for Culture and Arts
5	Broadcasting/ Film/ Video Game Careers	Video music recording engineers, broadcast music engineers, broadcast sound engineers, Broadcasting (DJ, PD, operator, etc.), Movie, TV, Commercial Music (Sound) Director, Content Creator
6	Music-Related Careers	Music critic, Journalist, Music technology business, Instrument maker, Music therapist, Music magazine editor, Record and sound distribution, Cultural policy and administrators, Researcher related to culture and art
7	Entrepreneurs/Starting Own Business	Music education entrepreneurs, Representatives of musical organizations (playing and choir), Representative of performance hall, Representative of performance agency, Contents businessman, Management businessman, etc.

IV. 연구 결과

1. 한국의 음악교육 및 교과과정에 대한 인터뷰 결과

국내 음악대학은 태생적으로 종합대학(university)의 예술대학 내 학부(과)의 형태로 생겨났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같이 콘서바토리형 음악원(conservatory)과 동국대학

교, 숭실대학교 등과 같이 학점 은행제, 평생교육원에서도 음악전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악대학에 해당하는 종합대학의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다룬다.

1) 음악대학의 '교과과정'

음악 대학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예술시장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관련 지식의 습득이 힘든 악기연주와 이론수업들이 주가 되는 음악대학의 현실적인 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되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근본교육)음대생들은 한 학기에 전공시험을 위해 주로 한국만 계속 연습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음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음악을 공부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예술산업인교육)예술시장을 알고 시장 내 다양한 직군별 수요를 파악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 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막연한 유학, 교육 대학원, 레슨과 학원 이라는 일률적인 방향성만 제시한다. 이는 30~40년 전이나 똑같은 실정으로 교육과정과 시장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다보니 음악 연관 직업을 다른 전공자에게 뺏기고 있다. **미디어, 기술, 예술경영, 교육학 등이 음대 교육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 단순히 타 전공과의 연계교육이 아닌 **음악적 지식 및 음대생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수**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젝트형교육)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연주공간(장소)을 찾고 연주기회를 발굴·기획** 해나가야 한다. 4차 산업 혁명과 동시에 강조되는 **창의융합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기회(문제)를 발굴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감을 갖게 하여 학생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단과대간연계교육)음대(예술대)-경영대(예술경영 포함)-인문대 간 연계된 교과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음대에서는 전공별 실기교육을, 경영대에서는 전공별 매니징 스킬을, 인문대(철학, 윤리, 도덕)에서는 음악의 가치, 음악인으로서의 자존감,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윤리 등을 배워야 한다. 대학 내 자원연계를 통해 시너지가 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음악대학이 지속가능하게 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화교육)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전공별 특화 수업이 필요하다**. 관악 특수악기 수업의 경우 특수악기(콘트라바순, 잉글리쉬 호른, 알토 트럼본, 피콜로 등)를 다양하게

다를 수 있는 수업이 있다. 현악기의 경우 오케스트라 액셀 레퍼토리 수업과 같이 전문적인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위한 수업이 있다”

2) 음악대학의 ‘진로교육’

주희선(Chu, 2013)은 음대생들의 희망직업은 연주자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체의 73.1%에 달하는 학생들이 희망 직업 외에는 다른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다고 밝힌바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진로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음대생들에게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세밀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기진로교육)진로관련 교과목이 존재하기는 하나 매우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러 학기에 걸친 진로상담과 보다 면밀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즉, 학교에서는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진로선택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진로탐색의 기회는 4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3, 4학년 때에는 연사 특강,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한다”

“(특강)음대생들은 연주가나 지도교수를 자주 접하므로 막연하게 이들을 롤모델로 삼고 연주가나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고학력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음악 관련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 초청 특강 및 간담회 등을 매학기 개최**하여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넓은 시야를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3) 음악대학 전공생들의 인식

음악 전공생들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로는 음악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목표설정)본인이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없이 악기연습만 하는 경향이 있다. **졸업 후 어떻게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본인이 지닌 능력으로 음악시장 혹은 문화산업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개방과소통)정통 클래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크로스오버, 영화음악, 재즈 등 다양한 음악장르에도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이제는 클래식 음악인들만을 위한 공연을 고민하기보다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고민해야한다”

“(능동적태도)성인이 되어도 부모, 선생, 학교에 의존적인 학생들이 많은데 본인의 진로에 대해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선택한 진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

4) 음악대학 교수자의 역할

음악대학 교과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교수자들에 대한 견해로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앞장서 탐색해야하며, 교수자로서 학생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할 책임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교과목보완)교수자들이 학생과 학과를 위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대개 커리큘럼 및 교과목 변경에 관하여는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책임감)졸업생의 대다수가 전문연주자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한 학년에 전공을 살려 음악활동을 이어가는 이는 소수인 만큼 교수자들은 음악전공자들이 재능을 살려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의지)음악대학 교수자들이 한마음으로 교과과정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변화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 직무별 교과목 도출 결과

전문가 대상 인터뷰를 통하여 음악대학 전공생들이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음악관련 6개의 직무별 필요한 교과목과 과목 세부 설명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 1: 창작분야 (공연포함)

- 예술 직업에 대한 이해: 공연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정보를 탐색·활용

- 기초재즈: 재즈에 대한 기초지식습득 및 실습
- 민족음악학: 전 세계 다양한 민족음악에 대해 탐구
- 셀프 프로모션: 예술가 경력을 위한 이력서작성, 네트워킹 인터뷰 기술 등을 훈련
- 음악학 개론: 음악사회학, 음악심리학, 음악미학, 음악철학 등의 다양한 음악학문을 탐구
- 악기론(특수악기): 다양한 악기(특수 악기 등)에 대해 탐구 및 실습
- 오디션 실습: 전문음악단체 오디션을 위한 집중교육(ex. 오케스트라 액션, 오페라 가수 오디션 등)
- 음악인문학: 음악에 표현된 인간의 사상과 발상을 인문학과의 연계를 통해 배움

직무 2: 기획/제작

- 음반 기획 및 실습: 음반의 제작·유통·판매 등의 기획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음반기획 실습
- 음악 마케팅과 관객개발: 마케팅 이론과 실제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관객개발을 중심으로 학습
- 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 공연 및 이벤트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고 기획안 바탕으로 기획 실습
- 무대예술의 이해: 무대의상, 조명, 음향 등 무대예술과 관련한 이론적 지식 습득

직무 3: 음악교육 분야

- 음악교육개론: 음악교육과 관련한 이론적 지식 습득
- 음악교수법: 교육자로서 활용가능 한 다양한 음악 교수법 학습
-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을 위한 실습

직무 4: 방송/영화/게임분야

- 음악 레코딩의 이해: 음악 레코딩, 믹싱, 사운드 편집 등 음악 레코딩 관련 이론과 기술 습득
- 미디 오디오 시퀀싱: 미디와 오디오 작업을 위한 기초 이론 및 지식 습득
- 음악 소프트웨어 입문: 음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용 및 실습
- 미디어와 예술: 미디어 관련 이론 및 사례를 탐색하여 미디어와 예술과의 관계를 논의

직무 5: 음악 인접 분야

- 음악평론과 글쓰기: 다양한 음악, 공연 등에 대한 음악 기사 및 평론 작성
- 음악치료: 음악치료와 관련한 기초 이론 및 지식 습득
- 예술정책 세미나: 문화정책의 이론 및 실무를 배움으로써 정부의 문화정책 흐름과 구체적 내용을 습득
- 문화예술현장의 이해: 음악 외 미술, 콘텐츠,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현장 실습 및 분석
- ict음악플러스: 신기술 활용한 공감각적 음악 실현

직무 6 : 음악 사업 및 창업

- 음악경영: 전반적인 음악비즈니스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
- 예술 기업가 정신 기초: 성공한 음악기업가 사례분석 및 기업가정신 기초이론 습득
-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예술장르와 대중음악시장에 대한 지식 습득
- 전공과 창업: 전공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를 예술사업으로 전환
- 문화예술콘텐츠 비즈니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기법 및 사업 아이디어 도출
- 예술 재원조성: 예술기금 및 지원금 등 재원 조성을 위한 방법, 테크닉 연구

3. 교과목 우선순위 도출 결과

1) 측정 항목별 점수 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음악대학 전공생들이 졸업 후 음악관련 다양한 직무와 연계 될 수 있는 주요 교과목에 대한 중요도, 시급성, 실행용이성, 파급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과목의 중요도 분석결과 '11. 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1순위)', '10. 음악 마케팅과 관객개발(2순위)', '29. 문화예술콘텐츠 비즈니스(2순위)', '7. 오디션 실습(3순위)' 이 도출되었다. 과목의 시급성 분석 결과, '11. 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1순위)', '4. 셀프 프로모션(2순위)', '1. 예술직업에 대한 이해(3순위)' 가 도출되었다. 과목의 실행용이성에 대한 분석결과, '11. 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1순위)', '7. 오디션 실습(2순위)', '1. 21세기 공연예술: 직업에 대한 이해(3순위)', '8. 음악인문학(3순위)' 이 도출되었다. 과목의 파급도 분석결과, '1. 21세기 공연예술: 직업에 대한 이해(1순위)', '9. 음반 기획 및 실습(2순위)', '10. 음악 마케팅과 관객개발(3순위)' 이 도출되었다.

<Table 6> Score Evaluation Result by Measurement Item (Closed Questionna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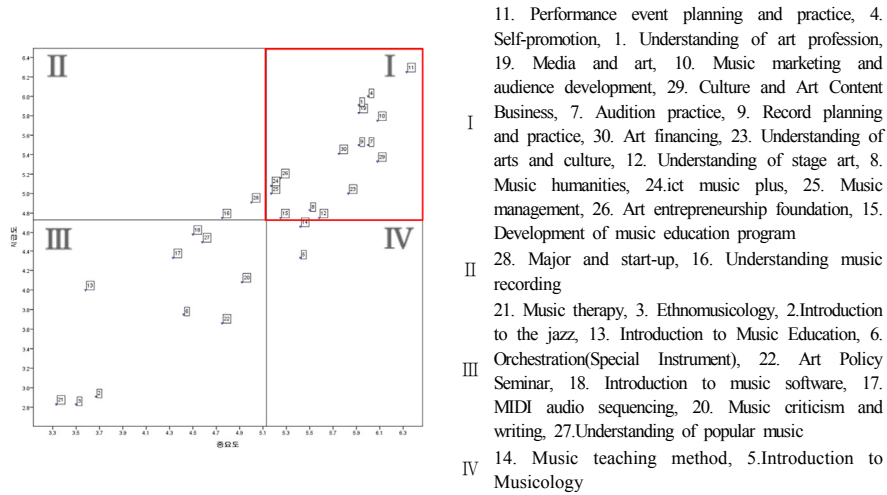
Subject name		Importance			Urgentness			Availability of execution			Influence		
		M	SD	Ranking	M	SD	Ranking	M	SD	Ranking	M	SD	Ranking
Creation	1 Understanding of art profession	5.92	.515	4	5.91	.996	3	5.91	.515	3	6.25	.452	1
	2 Introduction to the jazz	3.67	1.155	19	2.91	1.443	23	3.66	1.371	19	3.50	1.000	17
	3 Ethnomusicology	3.50	1.243	21	2.83	1.115	24	4.08	1.975	17	3.16	.937	19
	4 Self-promotion	6.00	.426	3	6.00	1.128	2	4.83	1.586	13	4.83	1.586	11
	5 Introduction to Musicology	5.42	1.240	9	4.33	1.231	18	5.75	1.138	5	4.25	1.138	14
	6 Orchestration(Special Instrument)	4.42	1.311	17	3.75	.866	21	4.75	1.712	14	3.83	1.267	16
	7 Audition practice	6.00	.739	3	5.50	1.567	6	6.00	1.128	2	5.41	1.311	6
	8 Music humanities	5.50	1.446	8	4.83	1.403	13	5.91	.669	3	5.61	1.115	8
Plan	9 Record planning and practice	5.92	.793	4	5.50	1.087	6	5.58	.996	7	6.00	.853	2
	10 Music marketing and audience development	6.08	.289	2	5.75	.754	5	5.75	.866	5	5.7.5	.754	3
	11 Performance event planning and practice	6.33	.492	1	6.25	.866	1	6.08	.669	1	6.00	1.073	4
	12 Understanding of stage art	5.58	1.443	7	4.75	1.545	14	5.16	1.403	9	5.75	1.084	9
Education	13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3.58	1.929	20	4.00	1.809	20	5.00	2.045	11	4.08	1.881	15
	14 Music teaching method	5.42	1.379	9	4.66	2.060	15	5.08	2.065	10	4.41	1.881	13
	15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program	5.25	1.357	10	4.75	1.603	14	5.00	2.000	11	4.41	1.165	13
Broadcast	16 Understanding music recording	4.75	.866	14	4.75	1.138	14	4.91	1.730	12	5.5.8	.900	5

Subject name		Importance			Urgentness			Availability of execution			Influence		
		M	SD	Ranking	M	SD	Ranking	M	SD	Ranking	M	SD	Ranking
	17 MIDI audio sequencing	4.33	.985	18	4.33	2.015	18	4.66	1.723	15	5.08	1.084	9
	18 Introduction to music software	4.50	1.087	16	4.58	1.832	16	4.33	1.371	16	5.25	1.422	7
	19 Media and art	5.92	.669	4	5.83	.937	4	5.00	1.595	11	5.58	.793	5
Music adjacent	20 Music criticism and writing	4.92	1.165	13	4.08	1.443	19	4.66	1.231	15	4.41	1.379	13
	21 Music therapy	3.33	1.435	22	2.83	1.403	24	3.66	1.155	18	3.41	1.505	18
	22 Art Policy Seminar	4.75	.622	14	3.66	1.073	22	4.83	.718	13	4.91	.996	10
	23 Understanding of arts and culture	5.83	.835	5	5.00	1.537	11	5.41	.900	8	5.25	1.138	7
	24 ict music plus	5.17	.937	11	5.08	1.564	10	4.66	1.557	15	5.41	.900	6
Music business	25 Music management	5.17	1.193	11	5.00	1.279	11	5.08	1.084	10	5.08	1.782	9
	26 Art entrepreneurship foundation	5.25	1.357	10	5.16	1.586	9	5.16	1.267	9	5.25	1.485	7
	27 Understanding of popular music	4.58	1.084	15	4.50	1.314	17	5.66	.778	6	4.50	.798	12
	28 Major and start-up	5.00	1.128	12	4.91	1.676	12	5.41	1.379	8	5.41	1.084	6
	29 Culture and Art Content Business	6.08	.900	2	5.33	1.073	8	5.83	.835	4	5.66	.492	4
	30 Art financing	5.75	.452	6	5.41	.793	7	5.66	.651	6	5.58	.66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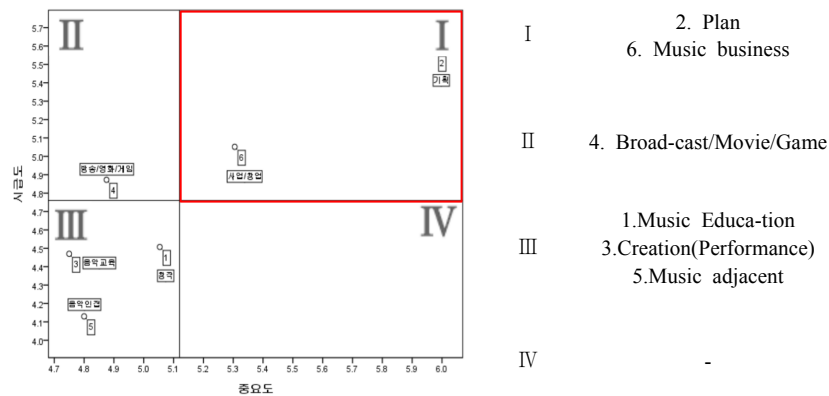
2) 교과목 우선순위 도출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각 사분면에 교과목의 측정값을 제시한 영역별 분포는 [Figure 1]과 같다. I사분면 위치하여 교과과정 개선에 있어서 중요하고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과목으로는 '11. 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 '4. 셀프 프로모션', '1. 예술직업에 대한 이해', '19. 미디어와 예술', '10. 음악 마케팅과 관객개발', '29. 문화예술콘텐츠 비즈니스', '7. 오디션 실습', '9. 음반 기획 및 실습', '30. 예술 재원조성', '23. 문화예술현장의 이해', '12. 무대예술의 이해', '8. 음악인문학', '24. ict음악플러스', '25. 음악경영', '26. 예술 기업가 정신 기초', '15.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도출되었다. II사분면은 시급하나 중요도는 다소 낮은 과목으로 '28. 전공과 창업', '16. 음악 레코딩의 이해' 가 도출 되었다. III사분면은 시급도와 중요도 모두 다소 낮은 과목으로 '21. 음악치료', '3. 민족음악학', '2. 기초재즈', '13. 음악교육개론', '6. 악기론(특수악기)', '22. 예술정책 세미나', '18. 음악 소프트웨어 입문', '17. 미디 오디오 시퀀싱', '20. 음악평론과 글쓰기', '27. 대중음악의 이해' 가 도출되었다. IV사분면은 중요하나 시급성은 다소 낮은 과목으로 '14. 음악교수법', '5. 음악학 개론' 이 도출되었다.

종합해보면, 앞 서 4가지 평가기준(중요도, 시급성, 실행용이성, 파급도)으로 평가한 결과와 유사하게 우선순위가 도출되었으며 특히 '11. 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 은 중요도 및 시급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중요도 및 시급성이 가장 낮은 교과목으로는 '21. 음악치료' 로 나타났다. 또한, [Figure 2]와 같이 6개의 음악관련 직무 유형별 측정값의 영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기획/제작' 직무, '사업/창업' 직무와 관련한 교과목들이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Figure 1] Distribution by Areas of the Subject



[Figure 2] Distribution by Areas of Music Job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음악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문헌 연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국내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음악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음악직무 및 직업 분류를 바탕으로 현 교과과정에 적용가능한 한 새로운 교과목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중요도, 시급성, 실행용이성, 파급도 평가를 통

하여 교과목 도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대학교육 및 교과과정 관련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시대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커리큘럼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예술 산업인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능동적인 학생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 형 교육, 단과대학 간 연계교육, 전공별 특화교육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형식적인 진로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세밀한 진로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며 음악 전공생들의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 태도로의 전환, 교과과정 개선 및 학생 진로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책임감과 변화의지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둘째, 음악관련 6개의 직무 별 교과목으로는 창작분야 8과목(예술 직업에 대한 이해, 기초재즈, 민족음악학, 셀프 프로모션, 음악학 개론, 악기론, 오디션 실습, 음악인문학), 기획/제작 분야 4과목(음반 기획 및 실습, 음악 마케팅과 관객개발, 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 무대예술의 이해), 음악교육 분야 3과목(음악교육개론, 음악교수법,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송/영화/게임 분야 4과목(음악 레코딩의 이해, 미디어 오디오 시퀀싱, 음악 소프트웨어 입문, 미디어와 예술), 음악인접 분야 5과목(음악평론과 글쓰기, 음악치료, 예술정책 세미나, 문화예술현장의 이해, ict음악플러스), 음악 사업 및 창업 분야 6과목(음악경영, 예술 기업가 정신 기초, 대중음악의 이해, 전공과 창업, 문화예술콘텐츠 비즈니스, 예술 자원조성)으로 총 30개의 교과목이 도출되었다.

셋째, 도출된 교과목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 시급성, 실행용이성, 파급도의 4개 항목에 대한 폐쇄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 ‘예술직업에 대한 이해’, ‘음악 마케팅과 관객개발’ 과목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 과목은 중요도, 시급성, 실행용이성 측면에서 1순위를 기록하였다.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공연기획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공연기획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본 교과목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와 예술’, ‘문화예술 콘텐츠 비즈니스’ 과목의 경우 3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그로 인한 문화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음악인으로서 대응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수업으로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디션 실습’, ‘음반 기획 및 실습’은 2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음악전공 대학생들은 졸업 후 예술단체 입단 위해 수많은 오디션을 보는 점, 과거와 달리 디지털방식의 음반 기획·제작이 이루어지는 점 등의 이유로 이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의 기회를 늘려 주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셀프 프로모션’의 경우 시급성 항목에서 2위로 도출되었는데 자기 홍보 전략, 자기 브랜드화 전략, 포트폴리오 및 이력서 작성, 인터뷰 기술 등 개인의 가능성을 새로이 발견하고 졸업 후 대처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행용이성에서의 높은 순위

를 기록한 교과목은 대부분 창작분야와 기획/제작 분야에서 도출되었는데 이는 그 외 분야(음악교육, 방송/영화/게임, 음악 인접, 사업/창업) 교과목의 경우 적합한 교수자 선정 및 교과목 도입이 당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강한 예술성을 추구하는 음악대학의 경우 타 영역이 음악대학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적 가치와 경제성이라는 평가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서 국내음악대학은 기존의 '고도의 음악적 과업을 완성하는 전문 음악가 양성'에서 '고도의 음악적 재능을 기반으로 사회전체의 맥락에서 예술과 음악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커리어 기회를 찾아내 음악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전문 음악가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교과목 변화를 위한 실행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교과목을 도출하기 위해 중요도와 시급성의 2가지 축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본 결과, 앞 선 4가지 평가 항목의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언급된 교과목(공연 이벤트 기획 및 실습, 셀프 프로모션, 예술직업에 대한 이해, 미디어와 예술, 음악 마케팅과 관객개발)이 동일하게 I 사분면상의 상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외 예술 재원조성, 음악경영, 예술 기업가 정신 기초 등이 추가적으로 도출되어 6가지 음악 직무 중 '기획/제작'과 '사업/창업' 관련 교과목이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성적인 의견제시와 단순한 선진 사례분석에 그치던 음악대학교육 커리큘럼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음악대학교육 및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음대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무 및 직업 재분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과목 및 교과목 개요를 제공하였다. 또한 교과목의 우선순위를 분석적 방법을 통하여 도출함으로써 실제 교과목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 유용함을 제공하며 학술적으로 음악대학 커리큘럼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음악대학 교수만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된 점에서 지역적 한계를 지니며, 실제 대학에서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측면이 반영되지 못하여 향후 이를 보완하여 연구결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으나 깊게 다루지 못한 음대생들을 위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교과목 구성방안도 후속연구로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음악대학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본고에서 도출된 모든 교과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기 보단 음악전공자들에게는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이 존재함과 교과목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악대학에게는 중요하고 시급하게 도입을 고려해야 할 교과목을 제안함으로써 음악대학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커리큘럼을 고안하는데 도움이 되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변화된 교육을 통해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지식사회와 창조경제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실현시킬 핵심적인 인재로 활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오천석 (2016). **발전한국의교육이념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 Beckman, G. D. (2005).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for music students: Thoughts towards a consensus. *College Music Symposium*, 45, 13-24.
- Booth, E.. (2017). *The music teaching artist's bible: Becoming a virtuoso educat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R. (2005). Performing arts creative enterprise: Approaches to promoting entrepreneurship in arts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6(3), 159-167.
- Choi, J. H. (2014). Curriculum satisfaction between music & business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2), 139-157.
- Choi, S. W. (1983). Seminar on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in Korean College: Problems of curriculum in music education. *The Music Research*, 2, 91-100.
- Chu, H. S. (2013). An investiga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wishing jobs of music maj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4), 187-208.
- D. Baskerville (2019). *Music business handbook and career guide (12nd ed.)*, SAGE Publications.
- DeNora, T. (2003). Music sociology: Getting the music into the action.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20(2), 165-177.
- Dunbar-Hall, P. (2005). Colliding perspectives?: Music curriculum as cultural studies. *Music Educators Journal*, 91(4), 33-37.
- Essig, L. (2012). Frameworks for educating the artist of the future: Teaching habits of mind for arts entrepreneurship. *Artivate*, 1(2), 65-77.
- Hanley, B. (2003). Navigating unpredictable possibilities in postmodern music education. *Journal of the Canadian Association for Curriculum Studies*, 1(2), 93-116.
- Hutchens, J. and Zoe, V. (1985). Curricular considerations in arts administration: A comparison of Vies from the field.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7-22.

- Jung, H. H. (2014). Distinguish the job types in viewpoint of music major.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7, 1-14.
- Jung, H. H., & Choi, J. H. (2013). Career choice and curriculum applicability of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2), 161-183.
- Kim, H. W. (2018). *Developing the curriculum of music university in an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 Kim, J. C. (1989). *Korean education policy research*. Seoul: Kyoyookbook.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2017). *University education statistics of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Date of connection 11.21.2018. <https://kess.kedi.re.kr/index>
- Lee, Y. H. (2011). *A study of improvement curriculum for planning abilit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with in university of music*. Master thesis, Chungnam University.
- Lee, Y. K. (1997). A study on the educational systems for higher education in music and undergraduate music curricula in Americ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6, 55-117.
- Lim, J. Y. (2015). An exploratory study of arts entrepreneurship in U.S. higher education : Focused on four arts schools. *Review of Culture&Economy*, 19(1), 91-121.
- Park, S. O. (2015). The restructuring of university and the changes of arts-related departments - Focusing on the changed educational environment.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12, 41-70.
- Parkes, K. A., & Jones, B. D. (2011). Students' motivations for considering a career in music performanc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9(2), 20-28.
- Pollard, V. & Wilson, E. (2014). The "entrepreneurial mindset" in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higher education in Australia. *Artivate*, 3(1), 3-22.
- Rumery, K. (1982). Developments in music career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69(2), 35.
- Schmidt, L. (1977). The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63(7), 40-41.
- Shepherd, J. & Vulliamy, G. (1994). The struggle for culture: A sociological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music curriculu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5(1), 27-40.

White, J. C. (2013). Barriers to recognizing art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essential to professional arts training. *Artivate*, 2(3), 28-39.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Retrieved February, 19, 2019, from <http://music.snu.ac.kr/>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8). *College Department Information (Department of Music College)*. Retrieved November, 20, 2018 from <http://www.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30/doInIt.do>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7). *Employment Statistics of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Retrieved November, 21, 2018 from <http://cesi.kedi.re.kr/>

Maeil Business Newspaper (2018). *70% of university capacity evaluation restructuring targets local universities. "Structural disadvantage."* Retrieved December 2, 2018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8/530931/>

Ministry of Education (2018).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2018 survey on career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Retrieved March, 18, 2018 from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793>

News1 (2016) *Analysis of 400 Jobs to Survive in the Age of AI... What's my job?* Retrieved October, 20, 2016 from <http://news1.kr/articles/?2612681>

Received: 9 July 2019, Reviewed(Revised): 3 October(7 October) 2019

Accepted: 7 October 2019, Published: 30 November 2019

Hyun-su Kim: E-mail: hskim@smu.ac.kr

Visiting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31, Sangmyungdae-gil, Dongnam-gu, Cheonan, Korea

Dong-su Lee: E-mail: muse6@naver.com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31, Sangmyungdae-gil, Dongnam-gu, Cheonan, Korea

